

# 충장로·금남로 역사·문화 벨트 조성 광주 동구, 찾아오는 관광정책 올인

## 5·18민주광장 '빛의 분수대' 조성...상권 르네상스 사업도

광주시 동구가 옛 전남도청 분수대를 중심으로 한 '5·18민주광장' 일대를 역사문화광장으로 조성하고, 충장로·금남로 주변을 상권문화지구로 개발하는 등 찾아오는 관광 정책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동구는 1일 "분수대를 '빛의 분수대'로 조성해 야간 경관기반을 구축하고, 충장로·금남로 상권의 활성화에 더해 기존 동명동 지구와 문화전당 일대를 연결하는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심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동구는 우선 분수대를 포함한 5·18민주광장을 세계적인 역사문화광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40

억원의 예산을 들여 '빛의 분수대'를 만들어, 문화전당권역의 도심 야간경관을 조성한다. 특히 5월 항쟁지 가운데 유일하게 원형을 갖추고 있는 분수대 일원을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5·18민주화정신과 광주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임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빛의 분수대' 작업에는 1980년 항쟁 당시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광주 시민들이 들었던 햇살을 주제로,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작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호남지역 최대 중심상권인 충장로 상권을 문화·예술과 청년 문화가 공존하는 '상권문화지구'로 변신시키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진행

한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낙후된 구도심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 사업을 5년간 최대 12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문화와 예술이 숨 쉬는 행복 충장, ACE상권'이라는 목표 아래 ▲충장로의 예술을 느낄 수 있는 '충장예술 창작소' 사업을 통한 영화의 거리와 장인의 거리 조성 ▲골목여행과 오매도매개미장터 ▲스마트디지털상권 조성과 지하예술정원 등을 조성한다. 즉 충장로 상권만의 특징인 유무형 자원과 역대 최대로 진행되는 연계사업의 체계적인 융복합을 통해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원스톱 상권문화지구를 만들어 관광객을 유인한다는 전략이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빛의 분수대와 충장로 르네상스 사업이 완결되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예술의 거리, 동명동 카페의 거리, 대인예술시장 등과 어울려 동구만의 특화된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5·18과 광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분수대가 빛의 분수대로 조성되면 광주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충장로 상권 르네상스 사업까지 마무리하면 동구는 민주와 콘텐츠와 문화전당, 아름다운 야간 경관, 낭만의 거리, 재래시장 및 충장·금남지하상가 등이 하나로 연결되는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랑의 온도 올려주세요 1일 오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출범식' 사랑의 온도탑 제막 행사에 참가한 이용섭 광주시장, 한상원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장희국 광주시교육감 등이 양궁국가대표 안산 선수(뒤)와 함께 사랑의 온도 올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12월의 첫 날 첫 눈

### 광주·담양·구례 등서 관측

1일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올해 첫 눈이 관측됐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일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광주와 담양 구례 등 전남 일부지역에서 올 겨울 첫 눈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올 겨울 첫 눈은 눈 날림 정도로 눈이 쌓인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지역 첫 눈은 작년(12월 13일)보다 12일 빠르고, 평년(1991~2020년)보다 2일(11월 29일) 늦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와 전남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 최저기온은 최대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매우 추울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2~5도 더 떨어질 것이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기온보다 낮아 춥겠으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가로수 애도

### 환경단체, 화정동 118그루 잘린 현장 찾아 근본대책 촉구

"어느 날 갑자기 나무들이 사라졌어요. 나무들이 사라지니 갑자기 아파트 키가 커진 것만 같아요."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지난달 28일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잘려나간 가로수 118그루 <광주일보 11월 30일자 7면>를 애도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시민들은 1일 오후 3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월드컵 4강로 일대에서 잘려나간 가로수를 애도하고 광주시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박송희 활동가는 추모사를 통해 "내가 사는 우리 동네, 118그루 은행나무와 메타세콰이어가 지난 주 흔적만 남겨놓고 사라졌다. 동네 사람들은 '이게 우리 동네라고?' 깜짝 놀라거나 '늦게 노랑게 은행나무가 얼마나 예뻐는데-', '이렇게 맘대로 다 없애도 되는거야?'라고 얘기한다"며 "광주시는 가로수 관리 조례를 두고 있지만, 조례가 있어도 심은 지 30년이나 넘은 나무를 없애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재건축으로 생을 마감한 메타세콰이어와 은행나무 118그루에게 미안한 마음과 슬픈 마음을 전한다. 동시에 그 나무들과 함께 살아 온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주민들은 이와 관련해 광주시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광주도심 속 나무들과 가로수는 여전히 잘려나가고 있다. 우리는 도로의 개설과 개발사업으로 잘려나가는 도시의 나무와 가로



1일 오후 광주시 서구 화정동 영화로에 밀돌만 남은 채 잘려나간 가로수 위로 국화꽃이 놓여 있다.

수가 더 이상 없도록 광주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잘려나간 은행나무 위에 일일이 국화꽃을 올려 놓으며 가로수들을 애도했다.

한편 화정동 일대 18개동 1976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 중인 영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8일 사업부지 내 인도에 있던 은행나무와 메타세콰이어 118그루를 잘라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남교육청 운전직 노조 전국 첫 출범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전남도교육청 운전직공무원 노동조합이 1일 출범했다.

해당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0월 19일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를 했고, 이날 출범식을 가졌다.

초대 노조위원장에는 윤복용(담양 월산초) 씨가, 사무총장에는 송권중(담양 고서초) 씨가 선출됐다.

산하 11개 시·군 지부 및 대의원으로 조직 구성을 마쳤다.

윤복용 위원장은 "기존의 노동조합이 다수의 교육행정직렬로 구성돼 있어 소수의 기술 및 특수직렬의 업무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 복지향상 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노조를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

## 광주 서구, 2022년도 노인 일자리사업 모집

광주 서구가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노령층 소득 증대를 위해 14일까지 2주간 '2022년도 노인 일자리사업'에 총 5644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 사업은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및 취업알선형으로 대상사업별 참여 조건은 '공익활동형'이 주소지가 서구인 만65

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시장형 사업단'은 거주지가 서구이며 만60세 이상이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오는 14일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선발 결과는 자격조회 및 면접을 거쳐 12월 3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튼튼한 지킴이**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